

#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지원 정책 비교분석:

영국, 미국, 한국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권혁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

## 요약문

본 연구는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과정 따른 각국의 시청자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국의 정책 방향과 내용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와 같은 시청자지원 정책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한 연구 전략은 '서술적 분석'으로서, 시청자지원 정책 결정과정의 역사적 흐름을 밀도 있게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서술적 분석이 단순히 이야기하기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시청자지원 정책결정의 인과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신제도주의적 이론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 나라의 상이한 제도 배치와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차이가 상이한 시청자지원 정책을 도출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나라의 시청자지원 정책은 디지털 시대에 시청자의 복지 증진을 담보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적인 수준에서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각국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익적 목표들은 단순히 레토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시청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정책 결정과정은 정부와 조직화된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익단체를 조직화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철저히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의 기반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및 시청자의 복지 증진이 되도록 하는 제도 배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선호와 주관적 관점이 '성장보다는 분배',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에 맞춰져 있을 때 가능하다.